



군종주보

2018년 5월 27일(제877호) 지극히 기뻐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청소년 주일)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삼위일체 그 사랑을 닮지.

신학교 입학 면담 때의 일입니다. 면담실에는 세 분의 신부님이 계셨는데, 각각 영성, 생활, 교리에 관해 질문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나름대로 면담 준비를 열심히 했고, 영성과 생활에 관한 질문에도 나름 잘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교리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질문이 ‘삼위일체란 무엇입니까?’였는데, 이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외운 그대로 ‘하느님께서서는 본체로서 단 한 분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동등하면서도 서로 구분되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교리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어지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하느님께서 삼위일체로서 존재하시는 것이 지금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때 갑자기 멍해지면서 횡설수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한 대답은 기억나지 않지만, 한 가지는 분명 기억이 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분명 어렵고 난해하지만, 거기에는 분명 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체험 속에서 ‘삼위일체가 신비’라는 사실을 알게 된 아우구스티노 성인처럼 삼위일체는 ‘신비’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설명할 수밖에 교리이지만, 어쩌면 삼위일체를 이해함에서 핵심은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아는 것에 있는 듯합니다. 결국,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느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그 사실을 전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성부·성자·성령 세 위격이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를 이루듯,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내리십니다. 그 사명은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인데, 무엇보다 이 사명에 있어서 핵심은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이 말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마지막까지 그들과 함께하시듯, 제자들을 마주하는 이들 역시도 마지막까지 함께 하는 이 ‘사랑’을 체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 사명을 실천해야 하는 우리들은 얼마나 그 사랑을 체험하고 있고, 또 그 사랑과 닮아 있습니까? 삼위일체는 신비이자 동시에 그 사랑을 닮아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김승(티.아퀴나스) 신부
중장(육군 제31사단) 성당 주임

- 제 1 특 시** 신명 4,32-34.39-40
- 회 답 송** ◎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 제 2 특 시** 로마 8,14-17
- 복음 보호송**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받으소서. ◎
- 복 음** 마태 28,16-20
- 영 성 제 송**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셨다. 그 영이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신다.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고성운 요셉



성인명: 고성운 요셉 (高聖云 Joseph)

신분: 독신, 순교자

활동연도: ?-1816년

‘성일’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던 고성운(高聖云) 요셉은, 충청도 덕산의 별암(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상장리)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천주교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그는 본디 성격이 착하여 많은 사람들로 부터 사랑을 받았으며, 신앙 생활도 아주 열심히 하였다.

고 요셉은 부모에 대한 효성도 지극하였다. 또한 고 요셉과 고 베드로 형제는 언제나 합심하여 성경을 읽고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는 데 열심이였으므로, 모든 신자에게 모범이 되었다. 고 요셉은 형과 함께 경상도의 청송 노래산으로 이주하여 살았다. 그는 1815년 2월 22일경, 교우들과 함께 예수 부활 대축일을 지내다가 경주 포졸들에게 체포되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을해박해의 시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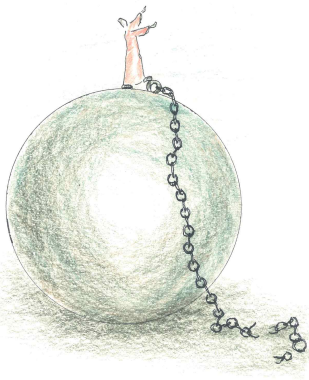
이때 노래산 교우촌 신자들은 도적이 온 줄로 알고는 몸이 날쎄고 기운이 세었던 고 요셉의 지휘에 따라 힘으로 대적하였다. 그러나 이내 신자들은 그들이 도적이 아니라 관청에서 파견된 포졸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신자들은 모든 저항을 멈추었고, 고 요셉은 어린양처럼 양순해져서 제일 먼저 포승을 받았다.

고 요셉은 형과 함께 경주로 압송되어 문초와 형벌을 받고, 감사가 주재하는 대구로 이송되었다. 거기에서도 고 요셉은 모든 고통을 참아 내면서 한결같이 신앙을 증언하였다. 그런 다음 사형 판결을 받고, 1816년 12월 19일(음력 11월 1일) 형과 함께 대구 형장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복 음 록 상

- 베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자유를 선언한다.



너에게,
자유를
선언한다.

이제,
저 파아란
하늘을,
마음껏
노래하라.

저 파아란
대지를,
마음껏
춤을 춰라.

상화이야기

삼십위일제



엘 그레코(1541-1614)
 1755-78년 작
 유화 300 X 179 cm
 프라도 미술관, 스페인 마드리드

본명 대신 스페인어로 ‘그리스인’이라는 필명으로 살면서 활동했고, 또 지금까지도 이 필명으로만 알려진 엘 그레코는 우리가 흔히 보던 이상화된 르네상스 회화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길게 늘어나고, 명확한 해부학적 인물들과 거리가 먼 인물들을 그렸다.

회색빛 구름 위에 하느님께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안고 계시고, 예수님의 몸은 힘없이 다소 늘어지고 뒤틀려 계시며, 예수님의 발에는 아기 천사들의 머리 또한 회색빛으로 그려져 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핏기 없는 잿빛으로, 이를 바라보는 하느님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하시다.

여섯 명의 천사들이 성부와 성자를 둘러싸고 있으며, 이들 위로 하늘에서 금색 빛과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내려오고 있다.

어떤 이들은 잿빛의 구름은 죽음, 일시성과 덧없음을, 상부의 금빛은 영속, 천상의 것을 상징한다고 하며, 천사들의 표정과 인물들의 자세에 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하였으나, 우리 같은 평범한 신자들은, 이 그림을 보며,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비를 그림으로 표현하려 고민하고, 이 신비를 믿었던 화가의 노력을 엿보며, 이 신비에 동참하려고 노력해볼 수 있겠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삼위일제 대축일: 농장 김용 신부

◆ 교구장 동정

-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미사
 때: 5월 27일(주일) 11:00

◆ 시제히계수련회

때: 5월 29일(화) - 6월 1일(금)
 곳: 제주, 성이시들 피정의 집

“군 복음화, 반침략은 열정으로”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